

## 노무현 대통령 자전 구술

1. 구술일자: 2001년 11월 21일
2. 구술장소: 서울 여의도 금강빌딩 자치경영연구원 사무실
3. 구술분량: 13분 30초 / 일부 공개
4. 주요내용: 성격과 독서습관

[80년대] 많은 변호사들이 재야운동에 가담했지만 사건 수임을 끊어버리고 [민주화]운동에만 몰두한 변호사는 많지 않지요. 저 같은 건 특이한 케이스죠. 한 가지 일을 결심하면 너무 깊이 빠지고 매달려버리죠. 그런 것이 좀 여유가 없는, 단점이 되지요. 실제로 취미 같은 거나 이런 게 다양하지 못해요. 다른 일을 안 해요. 정치 안에 완전히 집중해서 취미생활이나 여가나 이런 것들을 잘 못 가지죠.

그냥 성격적으로 제가 정적입니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에 소설책이나 위인전거나 만화책을 보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뛰어놀질 않았어요. 제가 성격이 정적입니다. 객지에 나가면 생소하고 불편해요. 새로운 환경보다는 익숙한 환경을 좋아하죠. 개인 사생활에서는 그래요. 집안의 환경이나 구조나 이런 것은 끊임없이 바꾸길 좋아하는데 내가 정착해있는 환경을 자꾸 바꾸길 좋아하는 것이지, 바깥에 나가서 새로운 사물이나 환경을 접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지.

그리고 견문에 대해서는 책을 훨씬 더 신뢰하는 쪽입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영국을 맘먹고 10일 동안 다녀왔는데 ‘영국에 관한 책을 하루 읽은 것보다 더 얻은 것이 없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입니다. 어쩌면 내가 그동안에 여유로운 여행을 계획해볼 형편이 아니었던 것도 이유 중의 하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여유 있는 여행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쉰다든지, 일을 떠나서 해방된다라는 측면이라면 상당히 여유로운 여행이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여유를 못 가져본 [거죠]. 아주 여유만만한 여행은 좋아할지 모르지. 여행도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행도 새로운 환경에 끊임없이 접할 때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스케줄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히 해방된 여행은 아마 이거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열심히 새로운 것을 구경하고, 호기심의 눈으로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이거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만일에 내가 더 시간이 있어서 여행을 한다면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 가서 폭 쉬는 여행 이런 쪽이 될 거죠. 그런 건 몰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견문을 넓히는 여행 이런 건 크게 신뢰하지 않는 쪽입니다. 근데 그게 좋은 버릇인지 나쁜 버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하고 생각해서 인상에 남는 것은 <15소년 표류기>라는 책을 보면은 [아이들과] 함께 표류하게 된 사람 중에 지리학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새롭게 표착한 섬의 위치나 지리를 얘기하면서 ‘여기가 어디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 ‘언제 와봤냐’ 이래 물으니깐 ‘의자를 타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자, 체어(chair), 의자를 타고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이 ‘책에서 읽었다’ 이런 것이죠. 책과 현실은 다르겠지만 짧은 시간에 필요한 것을 익히는 쪽에는 책 쪽에 좀 더 신뢰를 두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5소년 표류기>가 맞나? <15소년 표류기>에는 아이들뿐인데? 그걸 오래 기억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책을 통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약점이라고 하면 설득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게 나쁜 버릇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말이 좀 많아지는, 자기 말이 좀 많아지는 편이고. 그런 것이 왕왕 지적되는 나쁜 버릇인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더러 지적을 받습니다. 대강 넘어가도 될 일을 꼭 따지고 명료하게 논리나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 정리하고 넘어가고, 상대방이 납득할 때까지 자꾸 주장을 하는데.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대화에 있어서의 좋은 버릇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특히 요즘 기자들을 만날 때 애매하고 모호하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모호한 표현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딱 딱 부러지게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 논쟁에 대해 좀 도전적일 수밖에 없고. 사람이 여유가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너무 큰 약점을 얘기한 거 아닌가? 모든 경우에 꼭 내가 다 설득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확신하는 상황에 관해서 그럴다는 것이죠. 확신하는 상황에 관해서만 그런 것이고, 항상 내 의견만 내세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내 의견만 내세우는 건 아닌데 한번 논쟁이 시작되거나 하면은 끝장을 보려고 하는 버릇이 가끔가끔 닥칠 때가 있죠.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죠.

그밖에 사소하고 일상적인 버릇 같으면, 약간 수줍어하는 버릇이 있어요. 요즘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는데 맨 앞줄에 썩 나서기를 주저하고, 정치인들 사진 찍을 때 한가운데 맨 앞줄에 서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고 맨날 비실비실 밀려나고. 중앙당에 회의하러 가서도 같은 값이면 대표 옆에 딱 버티고 앉아야 사진 나오는 위치가 좋은데, 저 옆줄 저 뒷자리가 앉아있고. 당당해 보이지 않는, 당당하게 나서지를 못하고 좀 주저하는 버릇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약해보인다고들 그래요. 보스(boss)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걸 거북스러워하죠. 수행하는 사람이 많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스러워지죠. 그런 아주 대장 습관이 아직 몸에 익질 않은 것이죠. 그것도 약점이라면 약점이죠.

지금도 결국 ‘어느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나?’ 라고 말하면 ‘책을 읽을 때.’ 예를 들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어떤 사실이라든지 이론을 책에서 발견했을 때 아주 기쁘구요. 그 다음에 혼자서 머릿속으로 ‘이런 것 아니냐’ 일종의 유식한 말로 가설이라고 하는 ‘이건 이런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던 어떤 논리를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의 이론이나 또는 실험된 결과로써 발견하게 됐을 때,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내가 갖고 있던 가설이 검증된 결과를 발견했을 때 그때 아주 기쁘죠. 그 기쁨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나고 했을 때, 책에서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제일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만큼 책 읽는 것이 아주 재미있고 좋습니다.

제가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8비트짜리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 책이 제대로 서점에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 ‘EDPS 개론’ 이라는 책을 사서 컴퓨터의 기본 원리에 관해서 책을 읽기도 하고 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그 책은 컴퓨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컴퓨터 개론서가 아니고 컴퓨터 개발하는 이론, 컴퓨터 사용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컴퓨터의 원리에 관한 기본 이론[이었습니다]. 그 원리도 구체적 컴퓨터가 아니고 컴퓨터의 구조에 관한, 구조와 이치에 관한 기본 이론서였던 것 같아요. 이해할 수도 없는 책을 두 번씩이나 꾸역꾸역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70년대 말인가 80년대 초일 겁니다.

시간만 있으면, 나한테 시간이 주어지면 항상 그런 새로운 걸 들여다가 한번 보려고 하죠. 지금도 어제 그제 ‘부유한 노예’ 원어로는 ‘Future of success’, 미국의 클린턴 정부에서 초대 노동부 장관을 했던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라는 정치경제학자의 책이 신문광고에 나왔는데, 즉시 사달라고 해서 지금 사서 손에 쥐고, 아직 못보고 있지요. 지금 애가 타지요. 그걸 읽어야 된다. 왜 읽어야 되냐? 우리가 소위 신자유주의냐, 유럽식 사회적 시장경제냐, 제3의 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많이 했지만 그야말로 그 현상을 모두다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따라서 대안도 아직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모델로 일컬어지는 미국의 경제에서 시장경제의 미래, 시장경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다음 거기에 [시장경제] 크기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돼갈 것이냐는 데 대한 글을 쓴 것이니까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이론서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놓고. 지금 저걸 다 빨리 봐야 되는데 일이 바빠 보지를 못하고, 계속 ‘그 책을 봐야 될 텐데, 봐야 될 텐데’ 하고 지금 며칠째 다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뭔가 내가 해명에 고심하고 있던 어떤 원리라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 같은 것이 나오면 그런 거 발견했을 때 그냥 좋아지는 거죠. 기분 좋은 거죠.

실제로 그러면서도 독서량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생활이 도저히 독서를 허용하지 않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한데 나는 책을 많이 좋아합니다. 책을 최고로 신뢰하는 쪽입니다. 혼자서 생각한 것이 아주 유명한 철학자나 이런 사람이 옛날에 얘기해놓은 것하고 딱 맞아떨어진다는지, 그런 것이 탁 들어맞을 때 아주 기분이 좋지요.